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재희
석천학당 회장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도시는 마비되고, 농촌은 큰 상처를 입었다. 침수된 차량이나 무너진 건물은 다시 고치고 지으면 되지만 안타까운 인명 피해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슬픔으로 남는다. 이번 폭우로 반지하에 거주하던 세 식구가 들어찬 물의 수압으로 문을 열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다는 소식은 그 어떤 폭우 피해 소식보다 마음을 찢어 놓는다.

“하늘은 과연 있는가?” 역사가 사마천의 질문이다 다시 떠오른다. 하늘이 있다면 평생 나쁜 짓만 하며 살았던 도둑 같은 도둑의 괴수는 왜 천수를 누리며 잘살다가 깨 하고, 백이와 숙제 같은 의로운 사람은 수양산에서 굶어 죽게 만드는가를 질문한 사마천의 심정에 동참하는 요즘이다.

재해는 미리 예방할 수 없는 것인가? 초운장산(礎雲張傘), 밖에 나가기 전 주춧돌(礎)에 습기(潤)가 젖어 있으면 비가 내릴 징조이니 미리 우산(傘)을 준비(張)하라는 뜻이다.

반(反)의 경고

하라는 뜻이다.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반드시 작은 조짐들이 있기 마련이다. 1:29:300의 하인리히 법칙은 어떤 큰일이 1번 벌어지기 전에 29번의 중간급의 사건이 터지고, 그 전에 300번의 작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세상에 갑자기 찾아오는 재앙은 없고, 졸지에 다가오는 행복도 없다. 일이 커지기 전에 미리 서둘러 해결했으면 큰일이 아니었는데 무시하고 방관하다가 결국 큰일로 번져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분들은 조그만 조짐과 징조에 주목하라고 말한다. 세상에 어떤 큰일이든 작은 일에서 시작되고, 풀기 어려운 문제로 결국 쉬운 문제를 방지하는 데서부터 발단이 된다.

노자는 이것을 반(反)의 법칙이라고 말한다. 어떤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작은 일들이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 거꾸로(反) 뒤집힌다는 것이다. 쉽다(易)고 생각하여 방치했던 일이 뒤집혀 풀기 힘든 어려운(難) 일이 되고, 작다(細)고 무시했던 것이, 어느 순간 뒤집혀 해결할 수 없는 큰일(大事)로 번진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렵고 큰일이 닥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면 한결 수월하다는 것이다.

노자의 반의 법칙은 권력의 몰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권력이 무너지기 전에 작은 징조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아직 크지 않았을 때, 아직 어려운 상황이 아닐 때 빨리 손을 써서 미리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위기경영 능력이라는 것이다. 천 길 높은 독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은 개미나 땅강아지가 만든 구멍으로 인해 무너지게 된 것이고, 백척 높이의 유리오리한 집이 한순간 잿더미로 변하는 것은 아궁이 틈에서 나온 조그만 불씨 때문이라는 한비자(韓非子)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서 말하고 있다. 아직 문제가 크지 않을 때, 쉽게 해결할 수 있을 때, 미리 예방하고 해결한다면 나중에 큰일을 당하지 않는다. 주역(周易)의 변화원리도 노자의 반(反)의 법칙과 유사하다. 겨울철 단단한 얼음(堅氷)은 가을날 서리가 무쳐(嚴霜) 만들 어지는 것이니, 가을에 추운 겨울을 대비해야 한다. 가을 서리를 무시하고 넘어갔다가 결국 추운 겨울에 피할 수 없는 얼음의 재앙을 만날 것이다.

안타까운 세 식구가 살던 곳을 누추한 곳이라고 표현하는 사람, 그곳을 방만한 사진을 흥보승이라고 내놓은 관계자들, 폭우가 내릴 때 방망 사진을 울린 사람, 한때 동지였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밥그릇 싸움하는 상황은 모두 차가운 겨울이 오기 전에 벌어지는 작은 조짐들이다.

경계하고 또 경계하여 미리 예방하지 않으면 어느 날 거꾸로(反) 무너지는 상황이 다가올 것이다. “천하의 어려운 문제는 작은 문제를 방지해서 벌어지는 것이다(天下難事 必作於易, 천하난사 필작어이)!” 노자의 반(反)의 경고에 귀 기울이면 아직은 기회가 있다.

종교칼럼

매천 황현의 ‘사람 노릇’



김원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새 짐승도 슬피 울고 강산도 정그리니 무궁화 온 세상이 이젠 망해버렸어라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지난날 생각하니 인간 세상에 글 아는 사람 노릇, 어렵기도 하구나.”

매천(梅峯) 황현(1855~1910)의 절명시의 한 부분이다. 황현은 전남 광양군 서석촌에서 태어나 구례로 이사하여 성장하였으며 호는 매천이다. 벼슬길에 나아갔다가 부패한 정치 현실을 개탄하고 낙향하여 독서에 전념하면서 급변하는 시대 상황과 특히 일제의 침략을 모를 예의 주시하고 낱말이 비판하고 매국행각을 하는 자들의 부당성을 질타하는 글들을 적어 후세인의 귀감을 삼게 하고자 ‘매천야록(梅峯野錄)’이란 이름으로 남겼다.

그는 1910년 한일합방을 당하자 나라를 빼앗긴 울분과 자책감을 누를 수 없어 절명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생각해보면 그는 조정의 중추적 책임자도 아니고 합병조약과 관련 된 부서의 종사자도 아니다. 다만 부패한 정치와 날로 쇠퇴해가는 국운을 근심하는 올 꿈은 선비일 따름이었다.

그러함에도 그는 글 읽는 선비로서, 그리고 충효를 인간의 중심적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실행하고자 고뇌하였고 마침내 죽음이라는 행동으로써 그의지를 표현하였다. “인간 세상에 글 아는 사람 노릇 어렵기도 하구나”라고 한탄한 것은 그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45세 나이에 죽음을 결심하기까지 지식인이 보여주어야 할 사람 노릇이 무엇일까, 로 얼마나 많이 고민하였을까? 그는 1905년 을사조약 후 국권회복운동을 도모하고자 망명도 생각하고 의병봉기도 시도하려 했으나 좌절과 한계를 느꼈다. 1910년 끝내 합방이 되고 마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통분을 죽음으로 향하게 하였다.

권문세도는 물론이고 양반이내 선비내 하며 거들먹거리던 자들이 많았지만 다 특권층에 사로잡혀 있거나 당리당락이니 문벌의 이익만을 쫓기던 썩은 선비들

이 득실거리던 중에도 황매천과 같은 양심 있는 선비에 의해 충의정신과 민족정기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민족과 사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내 책임으로 통절히 느끼는 정신, 모든 잘못이 자기에 있음을 알고 죽음을 바쳐 참회하는 마음, 이렇게 역사 앞에 책임지는 사람이 있으면 새로운 희망을 씩 떠올 수 있게 된다.

로마 천 년의 역사를 지탱한 정신은 ‘노블리스 오블리주’, 즉 상류층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 평소 존경과 특권을 누리 만큼 국가가 위급할 때는 가장 앞장서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명으로 아는 전통이다. 영국의 이튼 스쿨(Eton School)은 19명이나 되는 영국수상을 배출할 만큼 귀족학교다.

그러나 이 학교의 학생들은 국가가 위급할 때 앞다투어 군에 지원함으로써 많은 희생자를 냈으며 그들은 이러한 희생을 당연한 사회적 책임으로 여기고 있다. 한국 전쟁 당시 많은 외국인들이 연고도 없이 이 땅에서 전사했는데 이들 가운데는 밴 프리트 유엔군 사령관의 아들고 모택동 주석의 외아들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군의 희생자 가운데 그런 고관들의 자녀가 있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진정한 지도력이란 공을 위한 헌신에 바탕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기고

일자리 1등 지자체 전남과 지역 균형발전



송문정
전남도 일자리정책팀장

전남도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종합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정부에서 2012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 일자리정책 성과와 노력을 평가한 이후에 전남도가 대통령상을 2번 수상한 최초의 지방자치단체가 됐다. 2016년 첫 번째 대통령상 수상을 포함해 지금까지 ‘8년 연속 일자리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며 어려운 여건에도 ‘일자리정책 선도 지자체’의 면모를 보였다. 전남도는 청년 인구유출과 고령화로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철강, 조선, 화학 등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일자리 창출에 불리한 여건임에도 이룬 성과가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 2021년,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전국 8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16개 군이 포함돼 경상북도와 함께 최다를 기록했다. 재정자립도 또한, 2021년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22.2%로 최하위였다.

인구감소와 청년 인구 유출, 낮은 재정자립도가 여전한 상황에서, 근래 수년간은 전남 주력산업의 위기이기도 했다. 철강과 조선으로 대표되는 전남의 주력 산업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 철강기업의 성장 등으로 인해 2010년대 초반부터 작년까지 침체를 겪어왔으며, 올해 들어 겨우 반등의 신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이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라남도도 ‘전남 일자리 행복시대 구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다양한 일자리 시책을 마련해 행정역량을 집중해 왔다.

대표적으로 주력산업 위기 극복과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블루이코노미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는 비대면 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를 중점 타겟으로, 국비 78억원 유치를 통해 873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9개 선도기업을 유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 전남도 내 시·군의 지역 특성과 자율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광역과 기초가 함께하는 ‘전남형 동행일자리사업’을 추진한 결과 시·군이 주도적으로 발굴한 124개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4248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러한 성과는 전남도와 시·군, 산업계 그리고 정부와 일자리사업 수행기관들이 함께 실제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사업 개발에 노력한 ‘모두의 힘’이 동반되었기에 가능한 성과였다. 이와 같이 지역 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다양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과 우수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남도는 여전히 커다란 과제들을 마주하고 있다. 디지털화 등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고령화라는 심각한 인구구조의 변화, 코로나19 유행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맞이한 탈글로벌화 등 다양한 외부충격까지, 수많은 국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한 일자리정책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에 전라남도도, 민선 8기의 시작에 즈음해 크게 세 가지 일자리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산업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기존 주력산업의 회복을 넘어서 차세대 주력산업을 선

점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탄소중립 등 첨단산업과 연계한 일자리정책을 중점 발굴하겠다.

둘째, 지역특화 일자리와 마을 연계 일자리정책을 확대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다. 청년을 지역에 정착시키는 일자리사업을 보다 다양화하고, 고용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거버넌스의 대전환이다. 전남도는 일자리정책 종합 컨트롤타워로 설립한 일자리플랫폼을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산업별, 주체별, 지역별 다양한 맞춤형 정책 발굴에 노력할 것이다.

현재도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은 여전한 상황에서 지역 간 일자리 격차가 양과 질 모두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취업난 속에서도 지역기업들은 여전히 구인난을 외치고 있는 실정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쏠림은 기존의 정부 주도의 고용지원 정책만으로는 넘어서기 어려운 격차인 것 또한 사실이다.

정부는 ‘민간 주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지방시대’를 선언한 바 있다. ‘지역성장이 국가 생존의 문제로 연결’됨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에 첨단산업 중심의 기반을 마련하고 양질의 일자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꾸준한 정책적 배려를 기대한다.

‘지역 균형발전만이 국가발전의 모멘텀’이라는 정부의 국정철학이 일자리정책에서도 ‘균형’을 맞춰가기를 바라며, 전라남도도 진정한 대한민국 1등 일자리 자치단체로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社說

광주·전남 핵심사업 예산 확보 총력전 펼쳐야

정부가 내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강력한 삭감을 예고하면서 광주·전남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사업의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가 계속사업 등을 검토하는 1차 심의와 지자체 신규·주요 계속사업을 들여다보는 2차 심의를 마쳤다. 또 현재 2차 심의의 3차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심의가 마무리되면 오는 9월 2일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국회의 시간’ 논의 결과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재부가 지자체 등이 제출한 내년 예산을 놓고 30조원이 넘는 칼질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광주·전남도가 밀고 있는 사업들이 지역 미래를 책임질 핵심 프로젝트라는 것이다. 광주시는 내년 국비 지원

사업으로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인 영산강·황룡강변 Y벨트 익사이팅 사업 등을 좌우할 핵심사업의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영산강·황룡강변 Y벨트 익사이팅 사업 등을 좌우할 핵심사업의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영산강·황룡강변 Y벨트 익사이팅 사업 등을 좌우할 핵심사업의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와 관련 광주시와 전남도는 올해 각각 3조2155억원, 8조3914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하지만 최근 국회와 영남지역에서 부산엑스포 등 메가 이벤트를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다 정부 주요예산 부처의 간부들도 영남에 편중돼 내년 국비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물론 광주·전남 국회의원들도 21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회 이동에 따른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광주·전남도와 면담을 갖는 등 지역 예산 확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계해 전략적으로 예산확보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영광 한빛원전 4호기 뱀질식 보수 우려된다

부실시공이 드러난 영광 한빛원전 4호기기에 대한 ‘뱀질식 보수’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지역민들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로부터 영광 한빛원전 4호기에 대한 보수계획 승인을 받고 조만간 공극(콘크리트 빈 구멍) 등을 보수하는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11월경 한빛원전 4호기에 대한 보수공사를 마치고 재가동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빛원전 4호기는 격납건물 부실시공 문제가 드러나 2017년부터 현재까지 5년째 가동되지 않고 있다. 확인된 공극만 140개였으며, 최대 깊이가 157cm에 달하는 것도 발견됐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탈핵단체와 주민들은 부실 원인조사 등이 생략된 보수공사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탈핵 단체들은 ‘원안위가 공극 원인만 조사한 것은 부실공사를 눈감아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부실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시행한 뒤 보수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수원 관계자는 “규제기관 승인을 받아 이뤄지는 보수작업”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어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 불신을 증폭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전 문제는 치명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아무리 작더라도 예사롭게 볼 사안이 아니다. 이미 체르노빌 원전사고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경험한 바 있다. 더구나 한빛원전 4호기는 부실 시공이 확인된 원전시설이다. 철저한 정밀진단과 총체적 점검없이 응급처방식 보수공사만 이뤄지면 큰 화를 부르게 될 것이 자명하다. 한수원과 원안위는 한빛원전 4호기를 보수하는 데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차체에 원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원자력 당국은 한빛원전 4호기에 대한 철저한 원인조사와 진단을 통해 부실시공 방지는 물론 원자력 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스포츠면을 편집하면서 ‘인비 슬램’이라는 제목을 쓴 적이 있다. 2013년 박인비가 LPGA 3개 메이저 대회(크래프트 나비스코, LPGA 챔피언십, US 여자오픈)를 우승하고 브리티시여자오픈에 출전했을 때다. ‘캘린더 그랜드 슬램’으로까지 주목을 받은 경기에서 박인비는 부담감 때문인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 그러나 2년 뒤 마침내 우승컵을 들었고, 2016년에는 올림픽에서 금메달까지 획득해 ‘골든 슬램’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김주형은 1라운드 1번 홀에서 퀘드러플 보기(일명 양파)를 하고도 포기하지 않는 침착한 플레이로 결국 5 등 차 역전 우승이라는 두 석권할 때 이를 기리는 표현이다. 타이거 우즈가 2000년 브리티시 오픈, US 오픈, PGA 챔피언십의 3개 대회를 우승한 뒤 한 해를 넘겨 마스터스까지 우승하자 AP통신 기자가 ‘타이거 슬램’이라는 첫 제목을 붙였다. 우즈는 이후 PGA 투어에 데뷔해서 82승(메이저 15승)을 올려 미국과 특정 계층에게만 인기 있던 골프를 전 세계, 전 세대가 좋아하는 스포츠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타이거 우즈의 활약은 많은 골퍼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지난 7일 PGA 투어에서 처음 우승한 김주형도 그 중 한 명이다. 일곱 살 나이에 호주 멜버른에서 우즈를 처음 만나 골퍼의 꿈을 키우고, 오직 우즈만 바라보며 달려왔다. 2020년 PGA 챔피언십에 첫 출전했을 땐 우즈와 나란히 서서 기념사진도 찍었다. 그리고 2년 만에 원팀 챔피언십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나이는 만 20세 1개월. 우즈의 첫 우승보다 8개월이 빨랐다.

김주형은 1라운드 1번 홀에서 퀘드러플 보기(일명 양파)를 하고도 포기하지 않는 침착한 플레이로 결국 5 등 차 역전 우승이라는 두 석권할 때 이를 기리는 표현이다. 타이거 우즈가 2000년 브리티시 오픈, US 오픈, PGA 챔피언십의 3개 대회를 우승한 뒤 한 해를 넘겨 마스터스까지 우승하자 AP통신 기자가 ‘타이거 슬램’이라는 첫 제목을 붙였다. 우즈는 이후 PGA 투어에 데뷔해서 82승(메이저 15승)을 올려 미국과 특정 계층에게만 인기 있던 골프를 전 세계, 전 세대가 좋아하는 스포츠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타이거 우즈의 활약은 많은 골퍼들에게

스무살 김주형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